

소아에서의 신성 급성 신부전의 임상적 분석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과학교실

권은지 · 정지미 · 정우영

Clinical Analysis of Renal Type Acute Renal Failure in Neonates and Children

Eun Jee Kwon, Ji Mi Jung, Woo Yeong Chung

Department of Pediatrics,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Paik Hospital

목 적 : 소아 연령에서 입원 당시 혹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발생한 신성 급성 신부전의 임상적 특징과 경과 그리고 예후에 대해 분석하였다.

방 법 :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산백병원 소아과와 신생아실에 입원한 환자 중 신성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된 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기준은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1.2 mg/dL 이상이거나 기저치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로 하였다. 피뇨성은 소변량이 0.5 mL/kg/hr 이하인 경우 무뇨는 <50 mL/day 로 정의하였다.

결 과 : 전체 환자의 성별 비는 2.2:1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신생아 6명, 영아 10명, 2-6세 12명, 7-12세 21명, 13세 이상 9명이었다. 진단까지의 시간은 평균 3.1 ± 5.8 일이었으며 내원당시 이미 신부전을 동반한 경우가 32명으로 54.2%를 차지하였다. 소변량에 따른 분류는 피뇨군 20명 (33.9%), 비피뇨군 37명 (62.7%), 무뇨군 2명 (3.4%)이었다. 원인은 전체적으로 신질환 24명 (40.7%) 감염 16명 (27.1%) 중양질환 9명 (15.3%) 기타 10명 (16.9%)이었다. 신질환은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 신염이 10명이었으며, 감염은 용혈 요독 증후군이 6명, 패혈증 5명이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신생아는 감염 및 미숙아, 영아는 폐렴 및 용혈성 요독 증후군, 2-6세는 신질환, 6세 이상에서는 신질환과 중양질환이 각각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계절별 발생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특이하게 여름철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가장 많았다. 투석치료는 4명에서 시행하였으며 모두 복막투석이었다. 호전된 환자의 경우 호전까지의 평균기간은 10.0 ± 6.7 일이었다. 만성신부전으로 이행된 경우는 1명이었다. 경과 중 18명 (30.5%)이 사망하였는데, 피뇨군 11명, 비피뇨군 5명, 무뇨군이 2명으로 비피뇨군의 사망률 (27.7%)이 낮았다. 연령별로는 신생아가 6명 중 4명 (66.7%)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중양질환과 감염과 같은 기저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

결 론 : 소아에서의 신성 급성 신부전은 조기 진단과 기저질환의 적절한 관리로써 대부분의 환자에서 정상적인 신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성인에 비해 매우 양호한 임상적 경과를 보였다.